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光州日報

광주·전남 휴일 날씨
21(土) 맑음 25/34℃
22(日) 맑음 25/34℃

단기 4343년 (음력 7월 12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758호 1판 2010년 8월 21일 토요일

무등시장 즐거운 씨름판

20일 오후 광주시 남구 무등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전통시장 씨름대회'가 열려 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 출연기관 등 5곳 통폐합

출자기관은 민영화…대상기관 다음주 결정

광주시가 산하 출연기관 4곳, 기타 기관 1곳을 비롯 5곳 이상을 폐지 및 통폐합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이르면 다음주에 확정된다. 광주시는 전략산업진흥원, 과학기술교류센터, 테크노파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공연예술재단 등을 폐지 및 통폐합 대상기관으로 검토중이다.

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된 공기업조직혁신추진위원회는 20일 오후 1차 회의를 열고 공기업 경영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출자기관 민영화, 출연기관 통폐합 등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광주시는 이날 "공기업·공단은 정원 5% 감축, 경상예산 10% 절감 등을 추진하고 출자기관의 경우 광주시 보유주식을 매각할 예정이며, 출연기관은 중복·유사기능 기관을 통폐합할 것이라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공기업조직혁신위원회의 심사대상은 광주시도시공사 등 공기업·공단 4곳, 광역정보센터 등 출자기관 3곳, (재)테크노파크 등 출연기관 15곳, 광주시체육회 등 기타기관 6곳 등 모두 28곳이다.

광주시는 이들 기관들의 경상예산 절감(42억원), 폐지 및 통·폐합(31억원), 정원조정(29억원) 등을 통해 10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력조정은 자연감소나 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도시공사 11명(정원 265명), 환경공단 6명(205명), 도시철도공사 11명(577명) 등 공기업에서만 86명을 감축시킬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폐지 또는 통폐합 대상기관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며 최소한 5곳이라는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것"이라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상기관은 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2차 회의를 마친 뒤 다음달부터 통폐합 이사회 의결 및 관련 규정 정비, 인력 조정 등을 거쳐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기타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조직재편에 나선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광주가 최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적조 사라졌나

2008·2009년 이어 올해도 잠잠…전문가 "발생 가능성 여전 긴장 풀지 말아야"

매년 여름마다 발생해오다 지난 2년간 사라졌던 유해성 적조가 올해도 잠잠히 지나갈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남해안 양식 어민들 사이에선 3년 연속 적조 피해 없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적조 전문가들은 고밀도 적조 확산을 우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과 달리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난 뒤 현재까지 유해성 적조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 밀도가 1㎖당 300개체 이상이면 발령되는 적조주의보나 적조경보(1㎖당 적조생물 밀도가 1000개체 이상일 경우)도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았다. 매년 7월 말~8월 초가 되면 적조가 기승을 부리면서 양식장을 덮쳤던 것을 감안하면 예외적인 현상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3일~15일 사흘간 여수 보돌바다(고흥 나로도~여수 남면 금오도 사이) 해역을 조사한 결과, 코클로디니움의 밀도가 1㎖당 10~25개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적조가 수산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태풍과 잦은 비, 집중호우 등으로 해수 표면 온도가 22.6~25.1도에 머물면서 유해성 적조 생물의 최적 생장온도인 25도를 넘지 않고 있는데다, 일조량이 부족해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홀수 해 적조설'로 불리는 '괴담(怪談)'도 어민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전남지역 적조 피해액은 9억6700만원(2005년)→3700만원(2006년)→5억8000만원(2007년)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홀수 해에 피해액이 유독 많다.

이에 따라 8월 중순이 넘도록 여지껏 적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데다, 지난 2008년 이후 2년 연속 피해가 없었던 만큼 올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립수산과학원 등 적조 전문가들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냉수대의 발달과 예년에 비해 적은 강우량으로 적조생물의 확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의 경우엔 7월 말 집중호우로 일사량이 많지 않아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은데다 수온도 낮아 적조가 맥을 못췄지만 올해는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유해성 적조생물 밀도가 높지 않지만 태풍 '덴무'와 국지성 호우가 지나간 뒤 당분간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고려하면 자칫 고밀도의 적조가 확산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주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이번주 경남 통영~완도 해역을 대상으로 적조생물 밀도나 분포상황, 해수온도 및 염분 등을 검사하는 5차 적조발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주면 적조 전망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쪽방촌 투기 의혹·美 국적 딸 추궁

이재훈·박재완 내정자 인사청문회

여야는 20일 8·8개각 인사청문회 첫 순서로 이재훈 지식경제부, 박재완 고용노동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관련기사 2면〉

인사청문은 이날에 이어 ▲23일 이재오 특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 진수희 보건복지가족,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24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24~25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현 정부의 국정 후반기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고비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실시된 청문회에서는 이 지경장관 내정자의 경우 서울 창신동 '쪽방촌' 투기 의혹과 박사학위 논문작성시 기업들에 설문조사서를 배포하면서 정부 정책과제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이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및 '김&장 법률사무소'로부터 5억원 가량 자문료를 받은 점을 집중 거론하며 이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 박 노동장관 내정자는 '폴리페서(현실정치에 참여하는 교수)'와 딸의 미국 국적 선택 논란, 노동 분야의 경험 부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후보자의 과거 언행을 살펴보면 노동자를 이념과잉, 장애물로 생각하는 등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분이 과연 노동부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쏟아지는 '폭염 기록' ▶3면 트위터 마케팅 ▶4면 바캉스 후 차량 점검 ▶5면 Books ▶8·9면 하이브리드 디카 인기 ▶13면 로페즈가 살아났다 ▶14면